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 선발 건의안

의안 번호	1140
----------	------

제안연월일: 2005. 10. .

제안자: 홍기서의원외 10인

1. 주 문

강남과 강북의 교육여건 차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종로구의 인구 증가와 강남·강북간 교육 평준화를 위하여 종로구에 소재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 30%를 종로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건의함

2. 제안이유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조선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600여년 동안 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 강남개발 등으로 인구가 2000년 18만 6천명에서 2005년 10월현재 17만명 으로 감소하였으며 강남으로 전출하는 주요 이유중 하나는 교육여건 차이 때문임.

그러므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존에 설립된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새로 설립하게 될 「국제고등학교」에 일정비율을 종로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지역할당제가 실행되면 경쟁력있는 학교 진학을 위하여 종로구에 전입하는 인구가 늘어나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구는 명실상부한 교육문화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임.

※ 참고 규정

1. 초·중등교육법 제5조(학교의 설립)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종로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관내학생 우선 선발 건의안

종로구는 조선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600여년 동안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근래에 강남 개발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매년 감소하여 2000년도에 18만 6천명에서 2005년 10월 현재 17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종로구에서 진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강남지역과 교육여건 차이 때문으로써 최근 들어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남과 강북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강북에 경쟁력 있는 학교 설립과 아울러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종로구는 서울 및 강북의 중심지이므로 우선하여 교육연건 개선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새로 설립하게 될 국제고등학교의 신입생중 일정비율을 종로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5년에 개교한 경기도 용인외고는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여 신입생중 30%를 용인지역에서 선발하고 있고, 2006년 개교예정인 수원외고 및 성남외고도 30%의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종로구도 조속히 지역할당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할당제가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학교 진학을 위하여 종로구에 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는 명실상부한 교육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종로구의 발전은 곧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므로 종로구에 소재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시 종로구 지역학생을 30% 선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5. 11. 1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